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활동 방향에 대한 회원의견 조사 연구*

가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맹 광 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백 상 호

= Abstract =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KSM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Members on Society's Future Activities

Kwang-ho Meng, M.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Sang Ho Baik, M.D.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was organized in May, 1983 to help and encourage its members to do various medical education researches and share the study result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society's academic activities.

For several years,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ity until the society was re-organized in March 1989.

Since then, the society has already held two conferences together with seminars and one workshop and publishes journal once in every 6 months.

To meet the need of members and their interests, the secretariat of the Society planned a questionnaire survey on society's future academic activities.

A simple questionnaire containing questions of select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ogether with the number of academic meetings the members want to have every

*이 논문은 1989년 11월 17일 한국의학교육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year, and the particular area of interests they have in relation to medical education.

One hundred and twenty members out of 280 returned the questionnaires and the major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ose questionnaires are as follows :

1. Of all respondents, 116 were male and only 4 were female.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in the age group of 40s and 50s(75.8%), and have been engaged in medical education for more than 10 years(70.9%).
2. 66.7%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have one conference per year whereas 33.3% wanted 2 conferences per year.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y selected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nd years of teaching.
3. Five major areas of interests of the respondents were setting objectives of medical education(33.3%), student evaluation(30.8%), medical ethics education (30.0%), teacher evaluation(29.2%), and the national physicians licensure examination(28.3%).

The areas of interests were sligh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age groups, years of teaching, and between those in basic medical science and in clinical science.

One of the things this study suggests is that the society focuses more basic field of medical education such as setting goals of medical education and developing better methodology of student evaluation.

서 론

의학교육에 관련된 내용의 학술적 연구 및 발표를 목적으로 한국의학교육학회가 처음 발족된 것은 1983년 5월 6일의 일이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의학교육협회(1983년에 한국의과대학장협의 회로 바뀜)나 한국의학교육 연수원 같은 의학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다분히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토론 및 협의를 하거나 의학교육자를 단기 교육하는 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반해 의학교육학회는 각 의과대학교수들 가운데 각자 자기 전공분야에서 경험했거나 조사한 의학교육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격적 의학교육 연구활동 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회는 발족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못해오다가 1989년 3월에 다시 재건 총회와 제 1차 학술대회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학회가 목적하는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어느 학회든지 그것이

목표로 하는 활동이 원만히 수행되고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체 회원의 의견 반영과 이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본 조사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 발족된 한국의학교육학회가 장차 어떤 종류의 학술활동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정리해 본 것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장차 학회의 학술활동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조사연구의 재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설문지로서 1989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조사당시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 280명 전원에게 발송한 설문지 가운데 이 기간내에 회수된 120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대상 재료로 하였다.

설문지에 기재된 주요 조사 항목은 몇 가지 회원의 개인별 특성 및 희망하는 학술대회 횟수, 학술대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심포지엄의 주제, 그리고 각 개인 회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학교육 연구분야 등이었다.

성 적

1.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 분포

표 1은 응답자 120 명에 대한 몇 가지 개인 특성별 분포이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응답자의 대부분인 116 명(96.7%)이 남자였고 4 명(3.3%)만이 여자였다.

연령별로 보면 50 대가 43 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 대의 36 명(30.0%)이었으며, 30 세 이하와 60 세 이상은 각각 29 명(24.2%)과 12 명(10.0%)이었다.

응답자의 의과대학 교직기간별 분포를 보면 20 년 이상이 47 명(39.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 년이상 19 년 이하의 38 명(31.7%)순 이었다.

교직기간이 5~9 년 및 4 년 이하는 각각 17 명(14.2%)과 18 명(15.0%)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기초와 임상이 각각 54 명(45.0%)과 66 명(55.0%)이었다.

표 1. 조사대상 의학교육자들의 몇 가지 개인 특성별 분포

특성별	수	%
성 별 : 남	116	96.7
여	4	3.3
연령별 : ~39 세	29	24.2
40~49 세	36	30.0
50~59 세	43	35.8
60 세~	12	10.0
교직기간별 : ~4 년	18	15.0
5~9 년	17	14.2
10~19 년	38	31.7
20 년~	47	39.2
전공분야 : 기초의학	54	45.0
임상의학	66	55.0
계	120	100.0

2. 응답 회원이 바라는 학술대회 횟수

표 2는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본 학회의 학술대회 횟수에 관한 분포이다.

표 2. 조사대상 의학교육자들의 개인 특성별 원하는 학술대회 횟수

() : %

	연 1 회	연 2 회	계	특성별 차이*
성별 :				
남자	78(67.2)	38(32.8)	116(100.0)	P=0.86
여자	2(50.0)	2(50.0)	4(100.0)	
연령별 :				
~39 세	18(62.1)	11(37.9)	29(100.0)	P=0.63
40~49 세	22(61.1)	14(38.9)	36(100.0)	
50~59 세	31(72.1)	12(27.9)	43(100.0)	
60 세~	9(75.0)	3(25.0)	12(100.0)	
교직기간별 :				
~4 년	12(66.7)	6(33.3)	18(100.0)	P=0.21
5~9 년	8(47.1)	9(52.9)	17(100.0)	
10~19 년	29(76.3)	9(23.7)	38(100.0)	
20 년~	31(66.0)	16(34.0)	47(100.0)	
전공분야별 :				
기초	35(64.8)	19(35.2)	54(100.0)	P=0.85
임상	45(68.2)	21(31.8)	66(100.0)	
계	80(66.7)	40(33.3)	120(100.0)	

* : $P(X^2)$ 값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66.7%에 해당하는 80 명이 연 1 회의 학술대회를 원했고 33.3%에 해당하는 40 명은 연 2 회의 학술대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 특성별로 보면 각 특성내 그룹간 차이가 모두 유의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남자 보다는 여자가, 고 연령층에서 보다는 저 연령층에서, 임상 보다는 기초에서 더 많이 연 2 회 학술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었다. 교직기관별로는 10 년 이하 교직생활을 한 응답자들 중에서 연 2 회 학술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3. 응답자들이 원하는 심포지움 주제 및 관심 의학교육 분야

표 3 과 4 는 각각 학회에서 주관하는 의학교육 심포지움의 주제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 및 이들이 평소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분야 5 가지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120 명들이 제시한 주요 심포지움 관심분야는 대학 교육목표, 학생 교육평가, 인성(윤리)교육, 교수평가, 그리고 의사국시제도 등으로서 응답자의 수로 본 중요성에 있어서 그 비중이 비교적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3. 조사대상 의학교육자들(N= 120)의 심포지움 관심주제 5 가지

관심주제	빈도 (%)
대학 교육목표	40 (33.3)
학생 교육평가	37 (30.8)
인성(윤리)교육	36 (30.0)
교수평가	35 (29.2)
의사국시제도	34 (28.3)

즉, 대학 교육목표 설정 및 이에관한 내용 토론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3.3%인 40 명으로 가장 많기는 하나 나머지 4 개 주제에 대해서도 각각 37 명, 36 명 및 35 명 순으로 큰 차이없이 이들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표 4 는 응답자 개인별 주관심 의학교육분야를 이들의 개인 특성에 따라 구분해 본 것이다. 우선 성별분석인데 여기서는 여자 응답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은 제외했다. 이경우 5 가지 주요 관심분야는 표 3 에서 보여준 주제 순서와 같았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대상자를 49 세 이하와 50 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보았는데 49 세 이하에서는 학생 교육평가(35.4%)와 기초의학교육(32.3%), 전공의 교육(30.1%) 및 교육목표(30.1%)등이 주요 관심분야로 제시된 반면 50 세 이상 응답자들에서는 인성교육(40.0%)과 교

육목표(36.4%), 그리고 교수평가(30.9%), 의사국시제도(29.1%) 및 통합교육(27.3%)의 순으로 중요한 관심분야로 나타났다.

한편 교직기간별로 볼 때에도 교직기간이 9 년 이하인 경우와 10 년 이상인 경우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의학교육분야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즉 교직기간이 9 년 이하인 응답자들은 학생교육평가(42.9%)와 교육목표(40.0%), 그리고 전공의 교육(37.1%) 순인 반면 교육기간이 10 년 이상인 응답자들은 교수평가(32.9%)와 인성교육(31.8%)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로 선택했고 다음이 교육목표(30.6%), 기초의학교육(28.2%) 순이었다.

표 4. 조사대상 의학교육자 특성별 관심주제 5 가지

특성별	관심주제	빈도	특성별	관심주제	빈도
성별:			교직기간별:		
남자 (N=116)	교육목표	38	9년	학생교육평가	15
	학생교육평가	37	(N=35)	교육목표	14
	인성교육	35		전공의 교육	13
	교수평가	34		의사국시제도	11
	의사국시제도	33		의사보수교육	11
여자	-				
연령별:			10년-	교수평가	28
-49세 (N=65)	학생교육평가	23	(N=85)	인성교육	27
	기초의학교육	21		교육목표	26
	전공의 교육	20		기초의학교육	24
	교육목표	20		의사국시제도	23
	교수법	18	전공분야별:		
50세-	인성교육	22	기초	기초의학교육	26
(N=55)	교육목표	20	(N=54)	기초의학중합평가	24
	교수평가	17		교육병원의 기능	22
	의사국시제도	16		교육목표	18
	통합교육	15		학생교육평가	17
			임상	전공의 교육	25
			(N=66)	의사국시제도	22
				교육목표	22
				학생교육평가	20
				임상실습평가	20
				교수평가	20

끝으로 응답자의 전공분야별 관심분야 분석에서는 기초의학전공 응답자의 경우, 기초의학교육(48.1%)과 기초의학 종합평가방법(44.4%)을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선정한 반면 임상의학 전공 응답자들은 전공의 교육(37.9%)과 의사국시제도(33.3%) 및 교육목표(33.3%)를 가장 관심 있는 의학교육분야로 의견을 제시했다.

고찰 및 결론

1988년 3월 현재 전국 28개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수는 기초의학분야가 754명, 임상의학분야가 2,597명으로서 총 3,35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¹⁾

이들 전부가 의학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이들 모두를 의학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이 280명 수준에 불과하며 또 이중에서도 단 120명의 의견만을 분석해서 우리 나라 의학교육 학술활동의 방향을 계획하는데 참고하자는 본 조사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제한점이 없지가 않다.

예컨대 본 조사 응답자들의 개인별 특성이나 이들이 생각하는 주요 의학교육 관심분야 등이 모든 의과대학 교원들의 개인 특성이나 조사 항목에 대한 이들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의학교육자 모두가 의학교육에 대해서 학문적 차원의 관심이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 이상 이 경우 전수조사가 반드시 바람직 하다는 이론 또한 맞지가 않다. 단, 본 조사연구의 경우 280명 회원 가운데 절반이 채 안되는 120명만이 그들의 의견을 내준 상태여서 전체 의견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없는 점은 역시 이 조사연구가 갖는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의견을 내준 120명 회원들은 본 조사 내용과 관련된 의학교육 학술활동에 그만큼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고 또 실제 참여도도 높은 사람들이어서 본 조사 연구결과가 한국의학교육학회 내지는 우리 나라 의학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계획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선 본조사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원하는 연간 학술대회 회수가 연 1회인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이미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여러 학술 모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학교육학회는 봄철 특별 세미나 내지는 워크샵과 가을철 학술 발표회 등 2회의 모임을 갖고 있다. 이는 연 2회 학술지 발간이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재정보조 조건이 되는 일 등과도 연관이 있으나 회원들이 모이는 학술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연 2회 학술지 발간을 위해서는 1회에 한하여 지상 심포지움으로 엮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의 주요 관심분야가 되는 학술 심포지움의 주제로 대학 교육목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 조사연구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것은 우선 교육목표가 교육 내용은 물론, 교육방법 및 평가로 이어지는 전체 교육계획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²⁾는 원칙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우리 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과대학 교육목표에 대한 교육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교육 내용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대학 또는 교육자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학교육계에서는 우리 나라 의과대학 교육이 1차 수준의 의료를 담당할만한 의료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맞는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면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기도 했지만,³⁴⁾ 현실적으로 의과대학 졸업생 대부분이 전문의 과정을 지망하고 있고 따라서 의과대학 교육 내용이나 평가가 간단한 임상수기 보다는 전공의가 되는 준비 과정으로서 이론 암기 위주의 교육 및 평가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조사 연구결과는 좀 더 분명한 의과대학 교육목표의 설정과 이에 다른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모든 의학교육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거나 교직 연한이 길수록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도 주목할만하다.

기초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 특히 기초의학 종합평가 문제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기초의학의 중요성이나 그 질적 향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연구는 우리 나라 의학교육자들이 우리 나라 현실 특유의 특정 의학 교육 문제보다는 의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즉 교육의 목표설정과 실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평가의 문제를 더 중요한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바 이는 장차 한국의학교육학회가 제한적인 의학교육 연구 주제보다는 우선 이런 기본적인 의학교육 문제를 다루어 교육하고 연구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References

- 1) 최삼섭 : 의과대학 인력관리 - 의학과 교원 및 조교 인력중심. 의학교육 제 15 권 (제 21 회 의학교육 세미나 자료집), p.3-21,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1990.
- 2) Kemp, J.E. : Instructional Design - A plan for unit and course development. Belmont, California, Fearon Publishers, Inc., 1921.
- 3) 한국의학교육협회 : 제 8 회 의학교육 세미나 - 한국의학교육의 방향 설정. 의학교육, 한국의학교육협회, 1976.
- 4) 한국의학교육협회 : 제 13 회 의학교육 세미나 - 일차의료를 위한 대학교육. 의학교육, 한국의학교육협회, 1978.